

# '5·18 다크투어리즘' 관광은 많고 역사·교훈은 적다

### 버스킹 챌린지·예술의 거리 탐방 등 5·18 연관성 적은 행사 '절반' '역사 교훈 여행' 투어 의미 퇴색... "오월 아픔 관광상품화 경계"

광주시가 '5·18민주화운동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사업을 추진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점차 5·18과 연관성이 적은 프로그램 일정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다크투어리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도 나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 2024전일빌딩245사업단(위탁 수행사 모람 플랫폼)은 전일빌딩245 '트립 투 메모리' 5·18 다크투어 참여자를 모집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 20일 두 차례 운영되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5·18을 체험하고 배우는 투어다. 참가자는 회차당 20명이다.

앞서 전일빌딩245 사업단은 지난 5월부터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투어는 3회차다.

참여자는 오후 1~2시 전일빌딩 프로그램과 공연을 관람하고, 오후 2시부터 2시간에 걸쳐 전일빌딩 245와 5·18기록관을 도슨트·가이드와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는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방문 일정이 잡혀 있다.

광주시가 '다크투어리즘' 명칭을 걸고 관광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다크투어리즘이 광주만의 경쟁력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음에도 지속적이며 구체적인 투어 프로그램의 형태로 정립된 적은 없었다.

기존 5·18 관련 관광상품이나 행사가 5월에 집중

**?** 다크투어리즘(Dark Tourism) 전쟁이나 재난, 학살 현장 등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을 방문해 추모와 반성을 하고 교훈을 얻는 '역사 교훈 여행'을 뜻한다.

데 있던 경향을 벗어나 5월 이후로도 참여할 수 있어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어 프로그램의 절반이 '문화 예술 체험'으로 채워져 '역사 체험 여행'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투어 일정 중 전일빌딩 프로그램 공연은 지역 예술인들이 펼치는 '버스킹 챌린지', '아트 스테이지'로 구성됐다.

또 아시아문화예술 거점 방문 일정은 공동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을 둘러 문화 소비·유통을 체험하는 일정으로, 두 일정 모두 5·18과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행사인 '모람 플랫폼'은 "공연 프로그램에서 5

·18과 연관된 음악도 공연할 예정이며, 예술의거리와 대인아시아 또한 5·18 관련 전시나 행사 흔적이 많이 있어 아예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투어 당일 대인아시아가 열리는 날이라 광주 시민들이 5·18 아픔을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축제도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일정에 추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광 전문가들은 다크투어리즘을 간판으로 내걸고 운영하는 프로그램만큼 연관성이 떨어지는 콘텐츠 때문에 투어의 본질이 희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미 동신대 관광학과 교수는 "관광객이 교육 관광을 하러 왔다고 해도 유명한 관광지를 가거나 지역성 향토성을 경험하려는 욕구는 있겠지만 마련이다. 광주의 가치를 함께 선보이려는 의도는 배려해야 한다"면서도 "사·공간적 제약 때문에 다크투어보다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돋보이는 상황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크투어 취지와 맞지 않게 국립5·18민주묘지가 빠지는 등 한계점도 보인다"고 분석

했다.

김 교수는 이어 "4시간뿐 아니라 한나절, 1박 2일 등 시·공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고 광주 곳곳의 민주 콘텐츠를 추가하는 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월 관계자들은 선불리 5·18 아픔을 관광상품화 하면 안된다는 우려도 내고 있다.

5·18은 학살 현장에서 누가 얼마나 희생됐는지 진상 규명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5·18을 다크투어리즘으로 다루는 데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다크투어의 본질은 학살 현장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추모와 반성, 생존자 면담 등을 통해 역사적 아픔을 함께하는 것으로 마을가집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투어 프로그램으로 진상 규명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아직 5·18 관광의 전면으로 다크 투어를 내세우기에는 시기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생들, 노담하자! 9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중학교 강당에서 1,2학년 학생들이 증강현실 그래픽과 미술공연을 통한 흡연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광주시 서구 보건소는 12일까지 흡연예방교육을 진행한다. /김진수 기자 jeans@

## "5·18 왜곡' 위턱대 전 교수 배상해야"

### 광주지법 "오월 단체에 100만원씩 300만원 지급" 판결

법원이 수업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전 경주 위턱대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민사21단독(판사 최운중)은 9일 재판장 5·18기념재단 등 오월 단체 3곳이 전 위턱대 교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월단체가 청구한 총 3000만원(각 1000만원) 중 각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인정했다.

A씨는 경북 경주 위턱대 교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21년 4월 '사회적 인권과 이슈'를 주제로 한 비대면 강의 도중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옹호하는 등의 발언을 했다.

비판이 이어지자 A교수는 "5·18과 관련한 다

른 견해와 저의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많은 국민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위턱대는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임했다.

광주시는 A씨를 5·18 왜곡 처벌법 적용을 검토했으나, 학문·연구 목적이었는지 여부 불확실로 예외 규정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결국 5·18재단과 단체들은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말한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 "다만 위자료 산정은 발언의 경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금속노조 총파업...기아차 광주공장 '적신호'

협력사 등 1800여명 '오늘 하루' 일부 라인 가동 멈추고 생산 차질

금속노조가 10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는 10일 광주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80)

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지역 총파업 참여 인원은 노조 추산 1800여명으로 모비언트, 모트라스 등 자동차 부품사를 포함한 8개 사업장이 동참한다.

노조는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92.54%의 조합원 찬성을 얻어냈다.

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노조 전임자가 한해 동안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제도) 철폐, 노조 회계공시 제도 철폐,

산별교섭 제도화와 교섭장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장 부품 생산 등을 주로 하는 금속노조의 총파업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일부 라인의 가동이 멈추는 등 생산의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도, 한빛원전 수명연장 중단 위해 개입을"

### 광주·전남 환경단체 촉구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가 전남도에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위한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9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는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2호기의 수명 연장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며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서 한수원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어떤 행위도 진행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합평군민 1422명은 지난달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 1·2호기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전남 지자체 주민 1만 3022명의 뜻이 담긴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단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주민들이 이해 불가한 내용인데다 각종 법률과 규정도 위반하고 있다. 중대사고 발생 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대한 예측과 복구 및 손해배상 내용이 빠져있는 평가서 초안은 재작성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리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컨설팅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관 (TMS-600+)
- 판형 산기관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 2011 수출백만불탑, 수출유공자 수상
-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 201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요별중소기업인)
-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 2023 국제청 모범기업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창조!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